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한데 모아, 오늘의 주제(big topic) 인

“관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스포츠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포츠이며,  
전세계 몇 백만 명이 즐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겁니다.

제가 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네, 축구입니다.

자, 그럼 어느 분이 축구를 좋아하고  
어느 분이 싫어하시죠? 먼저 좋아하는 분?

네, 저기 한 두분 계시네요.  
그리고 축구 중계가 텔레비전에 방송될 때면,

“전혀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저기 두 분 정도 계시네요.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을 맞추기 위해  
축구팬이거나, 축구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축구에 있어서 축구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얼마나 중요할까요?

매우, 매우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축구 경기에도 다른 요소들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죠.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팀원들에게 소리쳐 지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축구의 요소 중 하나죠.

하지만 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축구공이 없다면, 축구도 없겠죠. 그렇죠?  
축구공이 없다면 남는 것은 22명의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서로에게 소리치는 것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은 TV에 나오지도 않겠죠.

이처럼 공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믿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점들은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국면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축구에서는, 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강한 믿음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뛰어다니는 것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도 알아요.

별로 놀라운 사실도 아닌걸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아,

이제 알겠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지?  
매일 내 삶에서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몇 가지 구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함께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몇 시간 동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없는 삶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주님을 첫째로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는 종교의식이나  
따라야만 하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독교는 예수님과과의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도

예수님께서 제안하는 관계의 종류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과 맺고 있습니다.

저는 공적인 관계와 친밀한 사적인 관계가 있는데,  
공적인 관계는 매우 격식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형식적이고, 전문적이고, 거리감이 있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공적인 관계는  
그런 것이니까요.

또 다른 관계는 친밀하고 열정적인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관계를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공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사를 만날 때는, 아무리 그가 전문적이고,  
성격이 좋고, 유쾌하더라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꼭 껴안아 주거나 불에 뽀뽀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가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동네 가구 재료상에 가서  
뭇이나 그런 도구들에 대해 질문 할 때,

점원들이 잘 대답해 줬다고 해서

껴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공적인 관계는 거리가 있고,

사적인 관계는 가깝고 친밀한 것이 당연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저와 함께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한 구절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 누리고 있는 관계를 보아라.

바로 이것이 내 제자들에게 주는 관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아버지가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내 아버지와 의 관계를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응답하는지.

우리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관계가 내가 너에게 주는  
관계이다.

이러한 열정으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이 관계를 받아 들이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리감이 있고, 차갑고,  
공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관계는 공적인 관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한 가족의 관계입니다.  
각 단어들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까움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강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들 두 사이에는 기쁨도 있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열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간의  
사랑스러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내시는 열정을 알겠느냐?

나도 너에게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았느냐?

이러한 응답을 나도 너에게서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거리를 두는 차가움이 아닌  
가깝고, 열정적이며,

즐거운 관계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도 굉장하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범한 모든 죄와

앞으로 범할 죄값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지불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완전한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자, 그만 가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면 주님은

“내가 너를 온전히 용서하였다.  
이제 나와 이 관계를 함께 하자꾸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좋은 선물입니까?  
예수님의 좋은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나는 네가 나의 죽음을 근거로  
내게 오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꾸나.”

저는 이번 주에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제가 아내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다소 엉뚱한 일을 해서

아내가 재미있어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아내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 아내는 이 책을  
남편의 사랑스러운 점들이 담긴 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엉뚱한 행동을 할 때면,  
아내가 책에 적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들은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여러 번 엉뚱한 행동을 하여,  
가끔씩 정말 아내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아내가 있는 부엌으로 내려오면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그럴 때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내의 용서를 바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용서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다시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래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 받은 후 저리로 쫓겨나는 건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다시 관계를 누리자”고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친밀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를 당연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절 마지막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 관계는 매우 소중하며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네가 인격적으로 나에게 나아왔지만,

네가 그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서는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누가 주권자시며, 높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시며.  
오직 그분께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간밤에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 같아”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천천히 바뀌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남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봅니다.  
아이들은 종종 아버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웃어넘겨 버릴 수 있는  
영똥한 짓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가끔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다정함이나 친밀함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묻거나,  
“계명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많은 이야기를 하였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지루하고, 다소 우울하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이나 예수님은 “기쁨”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찾고 있으신가요? 물론 그러시겠죠?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울하거나, 단조롭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은  
기독교인들이 신약이라고 부르는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은 신약을 펴시면  
무엇이 보이나요?  
적어도 우리의 삶 속 세밀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결정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맞지요? 무슨 옷을 입을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아,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성경에  
나와있는 부분이 어디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입을지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가 3번째 데이트를  
했을 즈음에 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는 옷 때문에 우리가 같이 걸을 때  
당신이 좀 창피할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나를 위해 그런 생각해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옷을 골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는 아내에게 무엇을 입을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예로 들어보죠.

아침으로는 무엇을 먹을까요?  
역시 이것 때문에 성경을 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일정한 경계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배워

우리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 알겠어요.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구체적인 계명을  
하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나와있는데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서로를 어떻게  
돌봐야 할 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관계를 요약하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할 것. 이 한가지 계명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한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기는 하나

결코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께서는  
“네 형제 자매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립되어 살 수 없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니?  
이 말이 뜻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매번 볼 때마다  
뽀뽀를 볼에 찢하게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테이블을 보십시오. 뽀뽀하고 싶으신가요?

주위를 둘러보며

“오! 뽀뽀할 수 있지. 아주 좋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도망가실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아끼고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행하심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반복적으로 성경과 교회사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에서 보여지는

서로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섬기고,  
자신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랑의 방법은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재정을 내놓는 것 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마

“얼마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로써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제 생각에 희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때에  
정말 도움이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과 시간입니다. 희생이란 무엇이죠?

희생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생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돈을 조금 희생하고

그 대신 그 시간과 돈을 부어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 이런! 우울하군”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돕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가깝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드린 것에 대해

각 조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mailto: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http://www.10ofthose.com)